

진화론적 경제 분석 방법(진화경제학)

진화론적 경제 분석 방법의 대두 배경

- (기계론적인 경제 분석상의 문제) 20세기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경제 분석 방법으로는 복잡 다양하고 지식이라는 무형자산이 중요시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세계를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장치로 보는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기존의 방법에서는 주로 측정 가능한 대상만을 분석함
 - 따라서 지식이나 질적 변화 등 무형 혹은 측정 불가능한 요인들은 경제 구조 밖에서 주어진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자연히 경제의 내생적 발전 요인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진화론적 분석 방법의 주요 내용

- (진화경제학의 기본 관점) 新오스트리아 학파¹⁾를 중심으로 하는 진화경제론자들은 시장을 배분을 위한 기계 또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정, 발견적 절차, 문제 해결의 절차로 파악함
 - 즉, 기존의 주류경제학(신고전학과)에서와는 달리 경제현실을 불균형 상태에서에서의 동태적 변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과 전략은 요소(input)와 결과(output)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주체들간의 관계(relationship)와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 현대 경제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이라 불리는 리카디안-벤담주의 경제학, 그리 스미스의 이론을 발전시킨 스미시안-新오스트리아학파로 대별됨. 이중 新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문화적 진화이론으로 홉과 스미스가 이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그 후 아담 스미스의 전통을 이어 아 오스트리아의 미제스, 포퍼, 하이에크가 이 문화적 진화론을 더욱 발전시켰음

- 또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합리적이지 못하며, 그들의 의사결정은 규범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봄
- 따라서 진화경제학은 다윈(Darwin)과 라마르크(Ramark) 진화론의 핵심 요소인 유전 인자, 돌연변이와 같은 개념을 경제 분석 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임
 - 특히 혁신을 통한 기술 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 성장과 같은 분야에서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며, 진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함
- (분석 사례: 기업 행동 이론) 진화론적인 접근에 따르면 기업의 행위는 기존의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의 극대화(possibility of existence maximization)에 있는 것으로 파악함
 - 기존의 방법에 따르면 기업은 매순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는 행동을 하며, 이는 이윤 극대화의 형태로 나타남
 - 그러나 진화론적 분석 방법에 의하면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가는 세계를 상정하며, 이는 생존 가능성의 극대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 특히 기업의 의사 결정 모형에서 유전과 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유전적 요소는 기업의 의사 결정 관행을 의미하며, 변이적 요소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행동 규범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함

시사점

- (경제 현상 분석 범위의 확장) 진화론적 방법을 경제 현상 분석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인 분석이 가능해짐
 - 경제 내의 모든 변수들의 상호 작용 및 내생적 진화를 고려하는 생물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취급되지 않았지만 지식, 속도, 네트워크 등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 매우 중요해질 요소들을 감안한 분석이 가능해짐

-
- 따라서 단기적 조정보다 장기적 발전,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 동질적 경제 주체가 아닌 다양성을 지닌 경제 주체들의 공존, 불균형 상태를 비롯한 비최적 상태 혹은 복수 균형의 존재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임
 - (기업 혁신의 필요성 제공) 진화론적 분석 방법이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즉, 기업은 경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혁신임
 - 따라서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 소비자 만족 등 경영 전략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혁신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음
 -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 新오스트리아 학파에 따르면 진화를 조종하는 전략적 변수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행동 규율이라고 함.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변화된 세계 경제 환경에 있어 기업의 발전적 형태로의 진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시스템이 내적인 진화과정을 통해 자생적 질서(natural order)를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즉, 탐색과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바람직한 경제의 틀(frame)을 짜는데 주력해야 하며²⁾ 민간의 자율성과 창조성의 최대한 보장될 때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음

(박용주 연구위원 yjpark@hri.co.kr ☎ 3669-4012)

2) 新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의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Rahmen Politik 또는 Ordnungspolitik (frame policy or order policy)이라고 부르며, 정부는 큰 틀만을 짜고 세부적인 것장의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강조함